

주요 주간 동향 리스트

2021년 2월 1호

◆ 주요 동향

1. 광둥성, 해상풍력발전 보조금 정책 발표
海上风电“国补”取消后，这个地方的“省补”政策来了
2. 칭다오 해양에너지융합발전산업연맹 설립
青岛海洋能源融合发展产业联盟成立！
3. 칭다오, 엔타이와 웨하이의 협력으로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
角逐海洋中心城市，青岛、烟台、威海联合胜算几何？
4. 칭다오, 엔타이와 웨하이의 협력으로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
舟山有个“小目标”：建设“海上氢岛”

* 본 주요 동향은 중국의 주요 언론기사를 번역한 내용임

◆ 기타 동향

5. 중국해양석유그룹, 2020년 총 3000만 톤 LNG 공급
中国海油2020年度供应LNG首破3000万吨
http://ocean.china.com.cn/2021-02/01/content_77176838.htm
6. 랴오닝성 14개 해양생태복원 사업 모두 검수 통과
辽宁14个海洋生态修复项目全部完成验收
https://mp.weixin.qq.com/s/_oP3bBdpvjd5mUVyLAIjXg
7. 2021년 선전 해양대학교 건설 중점으로 추진
定了！深圳海洋大学2021年将重点推进
<https://mp.weixin.qq.com/s/XrR-kYd0PhAfSXwEqXMrjw>
8. 자연자원부 제3해양연구소와 자연자연부 도서연구센터 전략협력 협정 체결
自然资源部海洋三所与自然资源部海岛研究中心签订战略合作协议
<https://mp.weixin.qq.com/s/-iJbZOR8oOnql5qafL-KIA>
9. 선전시 글로벌 해양빅데이터센터 건설 추진
深圳市推进全球海洋大数据中心建设
https://mp.weixin.qq.com/s/NrDZsL_Wb2KAM4OEEy26FA
10. 2021년 중국 자연자원업무회의 개최
2021年全国自然资源工作会议召开
<https://mp.weixin.qq.com/s/Km3AG4piOTmKWQS0Cu0dKw>

작성자 : 진선선 중국연구센터 연구원

감수자 : 한광석 중국연구센터 센터장

김은우 중국연구센터 부연구위원

kmishanghai@naver.com/+86-21-6090-0395)

광둥성, 해상풍력발전 보조금 정책 발표

- 최근 광둥성 에너지국은 「광둥성 해상풍력발전의 질서 있는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(의견수렴안)」을 발표하였음
 - 이 「의견수렴안」에 따르면, 2022년~2023년 동안 광둥성은 해상풍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61.5억 위안을 투입할 계획임
-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국가보조금 정책이 취소된 후, 광둥성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질서 있는 개발과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3개 발전목표를 제시함
 - 첫째, 설치용량의 규모를 확대함. 광둥성의 해상풍력발전 누적 설치용량이 2021년까지 400만kW, 2025년까지 1,500만kW에 달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음
 - 둘째, 기술 진보를 촉진함. 2022년까지 8MW급 이상 터빈의 규모화 생산과 이용을 실현함
 - 셋째, 현재 광둥성의 해상풍력발전 사업 건설에 투입된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시민들의 부담 가능한 적정가격을 산정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. 따라서 2024년까지 건설비용을 낮추어서 적정가격으로 해상풍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
- 「의견수렴안」에서 제시한 주요 보조정책은 다음과 같음
 - 광둥성은 투자보조 방식으로 보조금이 필요한 사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보조자금은 성급 재정으로 통합 해결함
 - 또한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'적정가격' 시범사업을 추진하고, '14·5' 계획 시기 600만k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부지를 배치할 계획임
 - 보조금은 100만kW당 1억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고, 이 보조금은 일시불로 발전기 제조 기업에게 지급함
- 「의견수렴안」에서는 해상풍력발전 산업 및 산업단지의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평하고, 규범화되고, 고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경쟁환경을 조성하며, 사업개발, 토지이용, 해역이용, 환경평가, 단지건설 등 문제의 해결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음

(观沧海, 2021. 2. 3.)

https://mp.weixin.qq.com/s/XbQhN_A6p6-ts87_AV_l4g

칭다오 해양에너지융합발전산업연맹 설립

- 1월 29일, 62개 국가급 과학연구기관, 중앙기업, 상장기업과 업계의 선도기업으로 구성된 ‘칭다오 해양에너지융합발전산업연맹’이 정식으로 설립되었음. 이 연맹은 칭다오 블루벨리관리국이 칭다오시 발전개혁위원회, 칭다오 해양발전국과 함께 설립한 것임
- 연맹 설립목적 및 역할
 - 칭다오 블루벨리가 가지고 있는 해양과학연구 역량과 관련산 업에 대한 강점을 발휘하고, 해상 풍력발전장비의 산업체인을 확장시켜서 해양풍력발전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고자 함
 - 연맹 설립을 통하여 구성원 간의 심층적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, 일류 인적자원과 기술자원을 집중시켜,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전체 R&D와 제조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
 - 연맹은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, 현대화된 ‘해상풍력발전+’ 융합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며, 고품질 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실현하고, 친환경적인 해상풍력발전의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기업의 칭다오 입주를 촉진함과 동시에 천억 위안의 투자규모를 선도함
- 향후 주요 추진내용
 - 국가 해상풍력발전 융합발전공정기술센터 및 중국 해상 부식 풍력발전인증센터를 설립함
 - 중국 국내의 비교우위 자원 및 연구역량을 통합하여 해상풍력발전 및 관련 산업에 관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, 국가 에너지분야의 중요한 기술 장비를 개발함
 - 따관다오(大管島)와 샤오관다오(小管島)의 국내 최초 6MW급 부식 풍력발전 융합발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근해에서 심해로 확장하고, 고정식에서 부식(浮式)으로 혁신발전함
 - ‘해상풍력발전+해양목장’, ‘해상풍력발전+해수담수화’, ‘해상풍력발전+수소에너지 제조·저장’ 등의 새로운 발전경로를 모색하고, 심원해 200만k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고, 천억 위안 규모의 산업체인 클러스터화 발전을 선도함

(青島日報, 2021. 1. 30.)

<https://mp.weixin.qq.com/s/4SX8jioEnsOfyei5FBCj0g>

칭다오, 옌타이와 웨하이의 협력으로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

- 산둥성 자오둥(胶东)도시권은 다분야에서 일체화 발전이 추진되고 있음. 이는 칭다오, 옌타이와 웨하이의 협력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고 있으며, 글로벌 해양중심도시의 건설을 위한 새로운 조건을 마련하였음
- 3개 도시의 자체 경쟁력
 - 칭다오시는 2020년 해양생산총액이 5.5% 증가하여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.3%에 달함
 - 옌타이시는 2019년 말까지 해양생산총액이 1,808억 위안으로 산둥성내 2위를 차지하였으며, 옌타이시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.6%임
 - 웨하이시는 '13·5'계획 시기 기간 해양생산총액의 연평균 성장률은 9.3%를 기록하였고,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.1%까지 올랐음
 - 2019년에 이 3개 도시의 해양경제총생산액은 6,500억 위안에 달할 것을 추산됨. 이 수치는 중국 전국범위에서 경쟁력이 있는 수치임
 - 3개 도시는 해수양식, 해양플랜트, 항만물류 및 바이오의약 등 분야에서 산업체인 협동발전 추진이 가능함. 칭다오는 해운, 해양플랜트 및 바이오의약, 옌타이는 해양목장, 해양플랜트장비 제조, 연해관광 및 해양바이오의약제품, 웨하이는 해수양식, 해양바이오, 해양정보 및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음
 - 강한 해양연구역량을 가지고 있는 칭다오는 옌타이, 웨하이와 협동발전을 추진함으로써 해양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
-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문제
 - 첫째, 3개 도시의 협력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있는 해양산업을 강대하게 육성해야 함
 - 둘째, 해양산업체인을 상호 보완해야 함. 칭다오는 비야오의약, 선박·해양플랜트, 해양관광, 해운항만 등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, 바이오의약 산업 규모는 소규모이며, 선박·해양플랜트의 부가가치액도 비교적 낮으며, 현지 해양관광 발전 저하 등의 문제점으로 많은 산업들이 산업체인의 집적을 형성하기 어려움. 옌타이와 웨하이도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 3개 도시의 해양산업을 협동발전이 필요함
 - 셋째, 과학연구를 산업화로 전환시켜야 함. 칭다오의 해양과학연구기관은 지역 경제발전을 이끌 수 있는 많은 신산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

(财经杂志, 2021. 1. 30.)

http://ocean.china.com.cn/2020-12/29/content_77061203.htm

저우산시(舟山), '해상 수소에너지 섬' 건설 목표

- 저장성(浙江省) 최근 저우산군도 남부에 있는 리유홍도(六横島)에서는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
-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저우산의 정책들
 - 리유홍(六横)관리위원회는 '청결에너지 산업 섬' 및 '해상 수소에너지 섬'의 리유홍 시범구를 구축하기 위해서 산업발전 계획 수립 및 관련사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음. 특히 관리위원회는 수소에너지 산업을 리유홍의 장기적 중점발전의 전략적 신산업으로 간주하고 있음
 - 2019년에 발표된 「저장성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」은 저우산을 해양 분야 수소에너지 이용 시범지점으로 지정했음. 이 의견에서 수소에너지가 선박, 해양운송 등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수소에너지 해상공급체인의 구축을 모색한다고 요구했음
 - 2020년 말 저우산시 정부는 「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」을 발표했는데, 이 의견에서 리유홍도 수소에너지 전체 산업체인 시범건설 추진을 제시했음. '청결에너지 산업 섬'의 건설을 지지하고, 리유홍 산소에너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하였음. 또한, 과학기술 성과와 기업 제품 전시 및 제품 체험 등 기능을 모두 갖추는 산소에너지 과학기술 전시구역을 구축할 예정임
 - 저우산시 푸톈구(普陀区)는 해양경제 고급화 발전을 중심으로 '수소에너지 해상공급체인 구축'의 발전목표를 설정했음. 이는 리유형의 산소에너지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, 산소에너지 R&D센터의 구축 및 수소연료전지 콜드체인 자동차 등 개발을 제시했음
 - 리유형은 올해 하반기에 첫 수소연료 선박의 설계, 건조 및 성능 테스트를 완성할 계획임
 - 수소연료전기 자동차, 선박 및 일련의 수소에너지에 관한 이용은 현재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고 투입된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으며, 규모화와 상업화 이용을 실현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함
- 향후 계획 및 목표
 - 계획에 의하면, 2022년 저장성의 수소에너지 총 생산액은 100억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, 보급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는 1,000대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. 이와 동시에 시범지역의 수소에너지 공급 네트워크가 초보적으로 건설됨
 - 2025년까지 저장성은 완비한 수소에너지 장비와 핵심부품 산업 체계를 구축함. 저우산은 2035년까지 수소에너지 해양이용시범도시 '해상 수소에너지 섬'이 기본적으로 건설됨. 또한 수소에너지가 저우산시 에너지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%이상에 달하고, '수소에너지 사회'를 조성하도록 하였음

(观沧海, 2021. 2. 4.)

https://mp.weixin.qq.com/s/KAU1ct3nYtiu8B_ne57Oqw